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19)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년 3월 31일 (화) 배포	매 수	자료 총 3매

해외여행, 꿈도 안 꾀다..그래도 국내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계획 뚝
- 3월 3주차 16%로..조사 5년 만에 최저치
- 함께 추락하던 국내여행은 3월 들어 상승세
- 4월말-5월초 연휴기간 추가확산 유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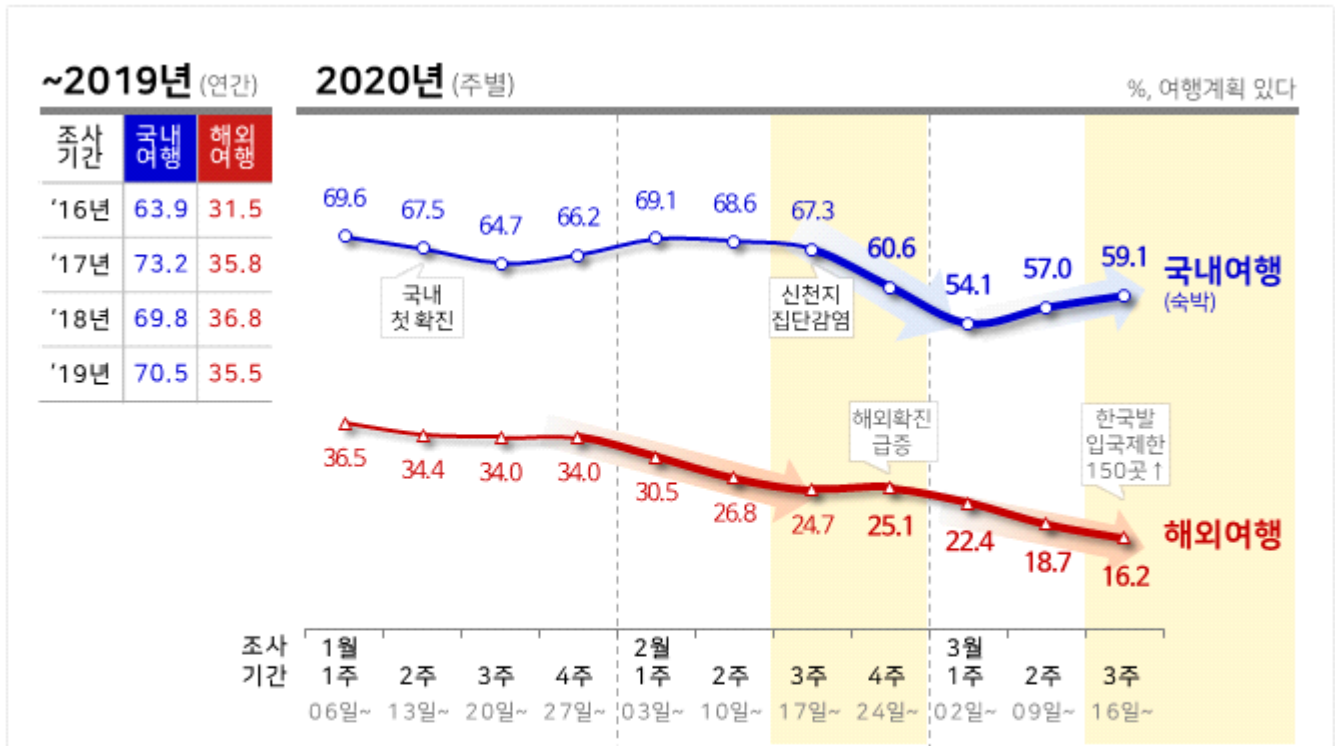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외여행 심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참고. 2020 여행이슈]. 최근(3월 3주차) 우리나라 사람의 '3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 비율은 16%로 지난 1월 초의 36%에서 반토막 이하로 쪼그라들며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동반 추락하던 국내여행 계획 비율은 3월 들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지역 U턴 현상이 예상된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 2015년 8월부터 매주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16년까지 매주 300명, '17년부터 매주 500명)에서 향후 3개월 내 순수관광 목적의 숙박 여행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계획하고 있는 여행지역이 어디인지 추적해 왔다.

■ 3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 올들어 36%→16% 급락

3개월 내 1박 이상의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지난 3년간 30% 중반대를 유지해 왔다. 경기침체와 No재팬 영향으로 다소 위축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기 전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국내 첫 확진 직전인 1월 1주차에도 해외여행 계획보유율은 36.5%였다[그림1]. 그러나 중국 내 확산이 절정에 이른 2월 3주차에는 11.8%포인트(p) 떨어진 24.7%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 이후 최저치이며, 3월에는 ▲1주차(2일~8일) 22.4% ▲2주차(9일~16일) 18.7% ▲3주차(17일~24일) 16.2%로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1] 3개월 내 여행 계획보유율



Q.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1) 연도별 사례수는 다음과 같음: ▲'16년 15,600 ▲'17년 26,000 ▲'18년 26,500 ▲'19년 26,000

주2)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하며, 당월의 몇 번째 월요일인지에 따라 주차가 정해짐.

주3) 매주 500명씩 조사, 자료의 안전성을 위해 주별 결과는 그 전주와 단순이동평균을 구했음.

■ 바닥 찍은 국내여행, 회복세 보여

국내여행 계획보유율은 올해 1월 1주차 69.6%에서 2월 3주차 67.3%로 2.3%p 떨어졌다. 동기간 해외여행 계획이 11.8%p 감소한 것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 집단 감염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크게 하락했다. 2월 4주차 60.6%로 전주 대비 6.7%p 감소했으며, 3월 1주차는 54.1%로 6.5%p 하락해 최저점을 찍었다. 다만 최근 2주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3월 2주차 57.0%(+2.9%p), 3월 3주차 59.1%(+2.1%p)로 연속 상승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꽃 개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여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해외 지역구분 없이 계획을 감소... 국내여행지는 대부분 올라

여행 목적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다. 절대적인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 여행 계획자 내에서의 점유율 변화가 아닌 전체 응답자 내에서 분석했다(여행 미계획자 포함).

아시아(중동 제외)로의 여행 계획률은 1월 1주 25.2%에서 3월 3주차 9.1%로 급강하했다. 한국 체류자 입국금지 조치가 빨랐던 베트남(-5.2%p)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중국(-2.6%p)의 급감 영향이 크다. 아시아뿐 아니라 주요 여행지(유럽 -1.5%, 북미 -0.7%)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여행 때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3월 3주차 조사 기준으로 ▲강원도 13.2% ▲제주 10.7% ▲부산 4.6% 순으로 Top3에 변화는 없었다. 다만 부산 여행계획률은 1월 대비 2.8%p 떨어진 것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감소폭이 크다. 계획률이 최저점을 기록한 3월 1주차와 비교하면 전남(+1.5%p), 강원·충남(+1.1%p), 부산·전북(+1.0%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특히 계획이 절반가량 줄었던 부산·경북·대구가 반전에 성공한 것이 긍정적이다.

■ 국내여행 획기적 지원으로 여행산업 불씨 살려야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지역이 180여 곳에 달하고(외교부, 3월 27일 기준), 코로나 19가 팬데믹 단계에 이르러 글로벌 여행시장 빙하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대외 여건이 안 된다. 국내여행 계획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이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의 둔화 ▲봄 여행시즌 도래 ▲억눌린 여가활동 욕구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연휴가 있는 4월 5주~5월 1주에 여행 계획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방역 관계자들은 이 시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예방에 소홀하지 않되 고사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와 지역경제에 작은 불씨라도 남겨 놓으려면 먼저 내국인의 국내여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국내여행은 최근 단기간-근거리-휴양 위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그 한참 뒤에야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도 다시 시작돼 여행산업 부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